

임실 옥정호 개장 후 백만명 돌파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 올해 3월 개장 이후 유료 관광객 20만5000명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개장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100만 관광객을 돌파하며 '보물관광지'로서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개장 이후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유료 관광객 수는 20만5,000여명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월부터 5월 말까지 세달 동안만 무려 20만명 이상이 다녀가면서, 개장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유료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임시개장으로 첫선을 보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원을 찾은 누적 관광객 수는 105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임시개장 당시 45만여명이 다녀간 이곳은 지난해 3월 유료화로 전환 이후 40만여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개장 이후 석달만에 작년 전체 관광객 수의 절반가량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인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갈수록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는 옥정호 주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420m의 긴 출렁다리와 사계절 꽃과 나무가 식재된 붕어섬 생태공원의 아름다움에 더해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들의 SNS와 입소문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환상적인 봄꽃들과 천혜의 옥정호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SNS 인증샷 맛집'으로 급확산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봄을 맞아 처음 개최한 2024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에는 2만여명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긴 데 이어 4월에는 벚꽃과 꽃잔디, 철쭉, 튜립 등이 만개해 장관을 이뤘다.

특히, 5월에는 옥정호를 배경으로 작약꽃이 만개하며 계절의 여왕인 불의꽃자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어 6월 중순부터 여름철에는 미리 식재한 수국과 배롱나무, 가우라 등 꽃이 만개할 예정이고, 가을절에는 국화꽃과 구절초, 코스모스, 꽃무릇 등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어 사계절 내내 관광객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관광객 증가 덕분에 옥정호 인근 음식점과 카페, 치즈 판매장 등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신바람이 일고 있다.

군은 앞으로 옥정호 일원에는 한우 맛집, 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등 먹거리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케이볼과 쥘리안, 모노데일 등 체험 관광시설도 갖추는 등 종합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 출렁다리를 개통하고, 붕어섬에 형형색색의 계절꽃을 식재해 조성한 생태공원을 보러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기쁘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보물관광지를 넘어 전국 대표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안전관리와 관광 편의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수많은 관광객들로 가득 찬 옥정호 출렁다리. (사진=임실군청 제공)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8억6000만원 지급

1학기 총 474명에게1인당 최대 200만원씩

순창군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공약사업인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2024년 상반기분 8억6,000만원을 지역 출신 대학생 474명에게 지급 완료하며 보편적 복지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올해로 시행 2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학생들에게 1년에 최대 200만원씩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년에 400만원, 4년간 총 1,6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매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순창 출신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순창군에서 순창군육친장학회에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순창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파격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2년째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학부모 서금옥 씨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대학에 보내면서 생활비와 주거비가 부담이 컸는데, 군에서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려대 약학과에 재학 중인 강성호 학생은 "순창에서 학교와 육친인재육에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았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생활지원금도

지원받고 있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순창을 빛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이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아동행복 수당 등 보편적 복지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6월 14일까지 상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로 신청받을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과 순창군육친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난달 31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주)친한F&B, (유)진북, 토당식품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창, 농생명바이오분야 활성화 '팔 걷어'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도내 산·학·연 관계기관과 협력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원장 정도연)이 농생명바이오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산·학·연 관계기관과 손을 잡았다.

지난달 31일 진흥원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을 비롯해 (주)친한 F&B(대표 정승관), (유)진북(대표 김진영), 토당식품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추진에 따라 전라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사업 신청심사동력확보를 통하여 지역 특화 인재양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이루어졌다.

특히 도내 3개의 기업은 육가공품(친한F&B), 발효제(진북), 소스(토당식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새로운 발효 기술을 적용한 고부

가 발효제품의 개발과 사업화를 통하여 지역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참여하게 되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손정민 단장은 "푸드테크와 바이오소재는 현 대학의 이슈로 본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 인프라 제공과 인력양성 등 기술교류에 이르는 상생협력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생명바이오 소재의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러 정도연 원장은 "전북 농생명산업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순창 토착발효미생물 소재 연구 및 실용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흥원은 더욱 긴밀한 상호 협력과 기업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임실군이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검사 기간은 6월 3일, 5일, 7일 3일간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 오후 1시~4시이다.

이번 출장 검사는 △6월 3일(월)-관촌면사무소 주차장(오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오후) △6월 5일-강진면사무소 주차장(오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오후) △6월 7일-오수면사무소 주차장(오전), 임실군민회관 주차장(오후)에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관내 112대가 대상이며,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하여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순창군이 2022년부터 추진한 3개 지구(구림 윤남, 필덕 용산, 복흥 금월) 3,057필지 240만 7,675.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2년 3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재조사 촉람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간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사업이 완료함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와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지급 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과수화상병 차단 총력

지난달 31일까지 집중예찰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가 과일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세균성 질병인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과일나무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이다. 특히 한 번 감염되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며, 치료약제가 없어 농가에 발병하면 해당 과수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하기에 예방·차단이 유일한 대응책이다.

평균기는 15.6도 이상, 최고기는 18.3도 이상이 되는 5월초부터 6월 말까지

주로 발생하며 기온이 올라가면 주춤해진다. 최근 기상요인이 병원균 증식에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며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상병 의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미리 제거하기 위해 전 읍면동에 예찰반 6개조를 편성해 지난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예찰을 추진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폐원하는 과수원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식물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상병을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의 60%를 감액하며, 농가 자율방제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농일지 등을 작성해야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을 피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